무엇이든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라!

앤드류 제롬 양 지음
황세정 실비아 옮김

가톨릭문화기획 떨기나무

무엇이든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라!

무엇이든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라!

앤드류 제롬 양 지음
황세정 실비아 옮김

가톨릭문화기획 떨기나무

알 림

본 저서 영어판에 사용된 영어 성경

NEW AMERICAN BIBLE REVISED EDITION copyright © 2011, 1986, 1970, by the Confraternity of Christian Doctrine, Washington, D.C. ,

REVISED STANDARD VERSION BIBLE, Second Catholic Edition, copyright © 2006, by the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NEW JERUSALEM BIBLE, Concise edition, copyright © 1999 by Darton, Longman & Todd, Ltd. and Doubleday, a division of Random House, Inc.

이 책에 사용된 성경 구절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2005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한국 교회 공용으로 승인한 가톨릭 공용 성경에서 발췌한 것임.

교회인가

심사 및 출판 허가 Nihil Obstat
: 캐나다 토론토 대교구 보좌 주교 펄스 레이시Pearse Lacey 몬시뇰, 검열 위원

인쇄 허가 Imprimature
: 캐나다 토론토 대교구 대주교 토마스 콜린스Tomas C. Collins

시작하며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 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

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하느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

---

1. 마르코1,15
2. 루카 13,24-27
3. 요한 12,46-50ㄱ
4. 마태오 7,24-27

서 문

>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마태 22,37-38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복음서 네 권의 저자들이 이 구절을 통해 나타내려고 했던 바가 이 책에서 제대로 드러나기 바란다. 이 책에 인용된 모든 말씀은 복음사가들의 손을 빌렸지만 예수님께서 쓰신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음,' '목숨,' '정신,'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모든 능력과 재능,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며, 우선적으로 행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당신을 사랑하기를 바라실까? 정답은 요한 복음 14장에 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요한14,15 21절에서도 말씀하신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그리고 또 한번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요한 14,23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랑하기를 바라신다. 바로 당신 계명에 순명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 말씀을 충실히

지킨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게 된다.

예수님의 계명을 성가신 짐짝 대하듯 하지 마라. 계명을 실천하겠다고 결심만 하면, 예수님께서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 11,30 라고 하신 말씀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면 통달과 자유가 주어진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 8,31-32

계명은 하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지침이요, 초대이기도 하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그대에게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실 때는 어려운 상황을 매우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행위를 통해 원수와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대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지도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특징이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를 분명히 이해하도록 하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

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하고 물으시므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내 양들을 돌보아라."요한 21,15-17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신다. 첫 번째 약속은 다음과 같다."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요한 14, 23 예수님께 순명하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대를 사랑하실 것이다. 하느님과 예수님 두 분 모두 그대 마음 안에 들어오시어 머무실 것이다. 절대 그대에게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저리 물러가라."라고 하지 않으실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대에게는 거절도 단죄도 없을 것이다. 천국의 문이 그대 앞에서 닫혀버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대의 집은 단단한 토대 위에 지어지고 그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은 이것이다."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요한 14, 21 그대는 아버지의 사랑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도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생각을 알려 주시고 당신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당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므로 그대는 예수님을 훨씬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그대 안에 어둠이 아닌 빛이 존재할 것이다.

세 번째 약속은 다음과 같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요한 14,15-17 ㄱ 여기서 "보호자"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parakletos 빠라끌리또스"를 번역한 것이다." 빠라끌리또스"란 변호사라는 뜻이다. 하지만 성령을 칭하는 빠라끌리또스는 그 이상의 의미이다. 변호사는 한 사건을 맡아 직업적인 이유로 그대를 대변해 움직이지만, 성령께서는 사랑과 열정으로 언제나 그대 편에 서 계신다. 성령은 그대의 현재와 영원한 안녕에 전념하신다. 그대를 위해 말하고 전구하도록 부름 받으셨고, 그대를 가르치고 충고하며 위로하고 보호하고 그대를 위해 싸우고 방어하도록 부름 받으셨다. 성령은 예수님 가르침의 진리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세상의 거짓을 입증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며, 주님과 함께 하는 그대의 여정에서 방패막이가 되어 주시고, 안전을 돌봐주신다. 이러한 보호자이시고 위로자이신 성령께서는 그대가 예수님께 순명한다는 이유로 그대에게 오시어 그대와 영원히 머물러 사실 것이다.

그대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 계명을 지키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과 친교와 수용, 지혜와 권능으로 그대 안에 함께 머무르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는 성부께서 명령한 것이다. 루카 9,35 참조 그리고 무엇이든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라. 이는 예수님 어머니께서 요구하시는 바이다. 요한 2.5 참조 예수님을 그대 삶의 첫 자리에 모셔라. 그대 존재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항상 계시도록 하라.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또는 "에드워드의 후손 야고보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또는 "아니타의 딸 알렉산드라야, 너는 나를 사랑

하느냐?"라고 물으시면 확신을 가지고 솔직하고 당당하게"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라고 꼭 답할 수 있도록 하라.

그분께 알려드려라! 그분께서 아실 수 있도록 하라!

차 례

시작하며 - 7

서문 - 9

제 1 부 사랑

제 1 장 - 19

기도 - 23

독서 01 - 24

독서 02 - 26

독서 03 - 27

독서 04 - 28

제 2 장 - 29

기도 - 38

독서 05 - 39

독서 06 - 40

독서 07 - 42

독서 08 - 43

독서 09 - 45

제 2 부 자신自身

제 1 장 - 49

기도 - 60

독서 10 - 61

독서 11 - 62

독서 12 - 63

독서 13 - 65

독서 14 - 66

제 2 장 - 68

기도 - 82

제 3 장 - 83
기도 - 91
독서 15 - 92
독서 16 - 94
독서 17 - 95
독서 18 - 96
독서 19 - 98
독서 24 - 125

제 2 장 - 126
기도 - 136
독서 25 - 137
독서 26 - 138
독서 27 - 140
독서 28 - 142

제 3 부 예수님의 복음을 살라.

제 1 장 - 103
기도 - 118
독서 20 - 119
독서 21 - 120
독서 22 - 122
독서 23 - 124

실천 - 144
예수 - 146
마치며 - 156

제 1 부

사 랑

제 1 장

✝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께서 명하시는 바를 실행에 옮기는 일임을 서문을 통해 보았다. 필자가 그대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대의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예수님의 가르침과 친해져 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작업을 그저 토론이나 해설하는 식으로 풀어나가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해 보라고 간곡히 부탁한다.

시작하기에 앞서 두 가지를 제안하겠다. 먼저, 주어진 복음 내용을 묵상할 때는 반드시 남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라. 그 말씀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 하지 마라.

두 번째, 복음의 본문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용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대의 생활방식에 맞지 않고 서로 어긋난다 싶을 때에도 포기하지 말 것이며, 다음과 같은 생각도 금물이다. "복음 내용이 잘 맞는 사람도 있겠지, 허나 나한테는 그걸로 귀찮게 하지 말게. 나는 더 중요한 일로 바쁜 사람이거든. 종교가 내 사생활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또는" 성경 말씀 한 구절도 안 읽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당도 안 나가요. 그런데 왜 내가 더 애를 써야 한답니까?"또는" 내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건 인정해. 그런데 말이지, 변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골치 아픈 일이더라고. 내가 좀 젊었을 때 바꿔보려 했으면 얘기가 달라졌겠지. 지금은 너무 늦었어. 그냥 살던 대로 살거야."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자. "나는 예수님께 마음을 열겠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수년간 끊임없이 재촉하셔야만 사람들이 당신의 의중을 파악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신다. 내가 저번 기회를 놓친 것도 비난하지 않으신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 나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 나 자신과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세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라도 지금도 충분히 시작할 가치가 있다. 나의 변화로 인해 내 사랑하는 사람들만이라도 엄청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제는 복음 구절을 활용하는 대략의 예를 보자. 독서2는 명령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 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이 말씀을 읽고는 원수 한 명을 떠올려 보라. 그런 사람이 없으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나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 앙심을 품고 있거나 원한이 있는 사람 하나를 떠올려 보라. 그런 사람이 여럿이라면 그 중에 비교적 마음을 덜 불편하게 하는 한 사람을 택한다. 아마도 식구 중에 한 사람이거나 직장 동료일 것이다.140쪽 목록 참조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이제부터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라. 약속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대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 주어라."그 사람에게 행할 선행을 지금 바로 계획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여라."오늘부터는 그 사람에 대해 좋은 말만 하고 험담은 일체 멈춰라. 그 사람 안에서 칭찬할 만 한 점을 찾아라.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냥하게 말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

는 칭찬을 하거나 용기를 주는 말을 하라. 또 다시 심술궂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잠시 책을 내려놓고 지금 바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하느님 보시기에 최고의 은총을 그 사람에게 내려주시라고 하느님께 청하라.

"네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어라."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서로 뺨을 마주 때리지는 않겠지만 가시 돋친 말로 서로 공격한다.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을 모욕했다 하더라도 모욕으로 되갚지 마라. 당신에게 화내며 더 심하게 대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리고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어라." 그 사람이 정당한 것을 요구할 때, 노골적으로 거절하면서 심술을 부리지 마라. 청하는 것을 주라. 그대가 못해주는 것이라면 적어도 그 사람이 그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정보라도 주라.

"네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이 그대의 물건을 잘못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을 때에는 그저 조용히 너그럽게 행동하라.

그대와 그 사람 간의 화해는 그 사람이 먼저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면, 이제는 그대가 먼저 첫발을 내딛는 것도 좋을 것이다.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 주는 이들에게만 잘해 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꾸어 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꾸어 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이는 그대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 호의를 베풀어도 안 갚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 절대 갚을 일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일을 말하며 이렇게 살 때 그대는 특별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대의 이런 너그러움이 결국은 그대와 그 사람 사이에 있는 적개심을 없애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대는 멋진 친구 하나를 얻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제자 한 명을 얻게 될 수도 있으며, 그대의 영혼은 더 깨끗해 질 것이고, 그대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그대가 사이좋게 지내보려고 하는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를 때도 자주 있고 이기적이기도 하다. 하느님께서는 그런 그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그를 용서하신다. 그대도 그 사람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은 어떨까? 그대도 그를 용서하는 것은 어떨까?

기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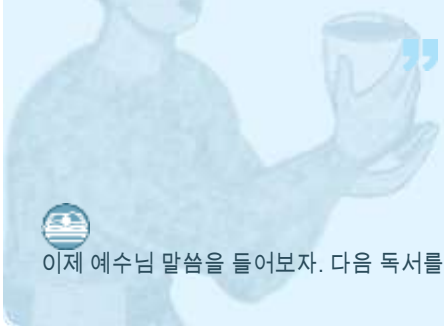
✝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
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마태 6,9-15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자. 다음 독서를 읽고 원하는 만큼 묵상해 보라.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싸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에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들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

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 마태 22,37-40. 2. 요한 14,21. 3. 마태 25,31-40.
4. 요한 15,11-12. 5. 요한 13,35.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 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네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네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 주는 이들에게만 잘해 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꾸어 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꾸어 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1. 루카 6,27-35. 2. 루카 6,38.

그러므로 하늘 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빚진 것을 갚아라."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제발 참아 주게. 내가 갚겠네."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1. 마태 18,23-35.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일곱 번 죄를 짓고 일곱 번 돌아와 "회개합니다."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1. 마태 7,12. 2. 루카 17,3ㄴ-4. 3. 마태 9,12ㄴ-13ㄴ. 4. 루카 6,36.

제 2 장

✝

간단히 복습해보자. 독서 01에서 예수님께서는"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당신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가? "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순명하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이다."그러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는 예수님께 순명하는 것이다. 또한 순명 하는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이 드러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보잘 것 없는 내 형제 중 누구에게든 너희가 행한 것은 나를 위해 한 것이다."

예수님께 순명하고 예수님과 하나되어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이들에게 마실 것을 주라. 직접 할 수도 있고 기부를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집 없는 이들에게 쉴 곳을 마련해주고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주며, 아픈 이들을 돌봐주고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방문하라. 노인들을 찾아 뵙고 마음을 담은 선물을 드려라. 병상 생활을 하는 이들,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들, 친구가 없는 이들에게 전화를 하라.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마음을 열고 젊은이들에게 말을 건네며, 사춘

기에 접어든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돌봐주는 이들이 없으므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이다.

두 번째 독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 간에 일어난 분열을 치유하는 데에 말씀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우리는 이미 봤다. 물론 반드시 이 책에서 제안하는 방법대로만 성경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너희에게 청하는 이들에게 주라."하실 때, 이 "누구든지"는 단지 원수들이나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문단에서 예수님은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주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당신 총애를 넘치도록 풍성히 퍼부어 주실 것이다. 어느 정도로 풍성하게 부어주실까? 마음씨 좋은 농부에게서 감자를 산다고 생각해보자. 이 착한 농부는 저울로 무게를 달아 파는 것이 아니라 바구니당 가격을 매겨 판다. 이 농부는 그대의 바구니를 끝까지 가득 채워준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 바구니를 흔들어 빈 공간이 없게끔 하고는, 바구니에 담긴 감자를 이리저리 움직여 차곡차곡 잘 담은 다음 감자가 바구니에서 흘러 넘칠 때까지 쌓고 또 쌓아준다. 아낌없는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갚아주시는 방법도 이런 식이다. 하느님께서는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독서 03에서는 비유를 통해 "용서"라는 주제가 강조된다. 하느님께서는 그대의 더 큰 죄도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그대도 배우자의 잘못을 용서하라. 똑같은 잘못을 여러 번 저질렀다손 치더라도 여전히 사소한 것들이 아닌가. 친척을 용서하고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을 용서하라. 그 사람들의

잘못을 기억에서 영원히 지워버려라.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지금 이 순간부터 잘 대해주도록 하라.

네 번째 독서에서 우리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라는 말씀을 듣는다. 영어의 "compassion자비심, 동정심"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의 접두사 "com"과 "고통' 혹은 "감정'이라는 뜻의 라틴어 "passio passionis"로 만들어졌다. 자비롭다는 것은 타인의 고통과 감정을 공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단어의 의미에는 기꺼이 돕겠다는 의지도 포함된다.

이 단어를 이용해 다음 가르침으로 넘어가보자. 독서05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나머지 이야기는 알 것이다. 그 고장에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지자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가엾은 마음compassion! 아버지는 아들의 감정과 고통에 동정심이 들었다. 젊은이들이 실수 할 수 있다는 것도, 인간이 죄를 짓고 산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아들이 뉘우치고 돌아왔다. 아버지는 아들을 질책하지 않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 비유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방종한 생활을 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에 대해 아셨다. 인간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도 아셨다. 죄에

대해서도 잘 아셨고, 죄를 짓는 이들에 대해서도 잘 아셨다. 예수님은 자녀들을 향한 성부의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해 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루카 15,4-7

만약 지금까지 죄에 빠져 살았다면 하느님께서 그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 하느님께서는 그대의 영원한 행복에 신경 쓰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대를 찾고 계신다. 그대를 찾으실 때까지 중단치 않으시리라. 그대가 집으로 돌아오면 당신의 천사들과 함께 성대하게 잔치를 여시리라.

독서06에 나오는 비유는 당신 백성을 향한 하느님의 너그러움을 보여준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하신다. "하늘 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 밭 임자는 그날 몇 차례 장터에 가서 사람들을 더 불렀다. "그리고 오후 다섯 시쯤에도 나가 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일에 늦게 합류한 사람도 이른 시간

에 와서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하루치 임금을 받았다!

독서 07은 이런 경고로 시작된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여기서 '작은 이들'은 어린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업신여기고 얕보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를테면 특정 사안에 대해 어떤 사람의 의견을 무시해 버리는 경우, 그들의 겉모습이나 정신적 미성숙, 몸가짐, 태도를 가지고 업신여기는 경우, 우리는 그들을 '작은 이들'로 대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독서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시하는 사람들, 비웃고 욕하는 사람들, 면전에서든 등 뒤에서든 폄하하는 사람들을 떠올려야 한다. "네가 있는 것 자체가 짜증나. 너무 바빠서 너랑 얘기할 시간은 없을 것 같다. 넌 나와 같이 어울릴 부류가 아니야."[140쪽 목록 참조]라며 대놓고 감정을 드러낸 경우도 기억해 보라. 가족 중에서 내가 이렇게 대하는 사람은 없는지, 직장에서 나보다 아래 직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적은 없는지, 또 특히 우리가 잔소리 하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이런저런 명령을 하달하는 경우는 없는지 기억해 보라.

이 독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하신다. 두 번째 문장의 '심판받지 않는다.'에서 '심판'이란 마지막 날 하느님의 정의의 심판을 말한다. 첫 문장에 쓰인 '심판'은 '비난하다, 잘못을 찾아내다, 탓하다, 단죄하다'라는 뜻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조롱하고, 자신이 이해 안가는 부분에 대해 비꼬아 말하는 데에 신이 나 있다. 그리고 대화에 등장하는 모든 주제에 대해 한 마디씩 거드는 것도 좋아한다. 비판할 거리를 많이 찾으면 찾을 수록 자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안다. 대체적으로 이런 한가한 잡담은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고 나를 부풀리는 식이다. 자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과대평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과소평가한다. 자신의 악담 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이 비난한 사람들이 잘 안 풀리기를 빌며 쾌감을 느낀다. 자신의 악의에 눈이 멀어 타인의 결점이 자기 눈에는 보인다고 착 각하며 추잡한 소문을 낸다. 주변 사람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거나 기도해 주지는 않고 비웃음과 반감을 조장하면서 증오의 불길을 부채질한다. 이런 사람들의 말에는 내면의 사악함이 드러난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 신다."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사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곳간에 서 선한 것을 꺼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꺼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껄인 쓸데없는 말을 심판 날에 해명 해야 할 것이다. 네가 한 말에 따라 너는 의롭다고 선고받기도 하고, 네가 한 말에 따라 너는 단죄받기도 할 것이다."

그렇게 되지 마라.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불완전함은 이책을 통하여 분명하게 제거되어질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일단 경계를 하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고쳐질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요한 8:26) 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십계명 중에서 여덟번은 '너는 하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선하고 숭고한 것을 세우기 위해 악한것을 들추어 내어 허물어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진실로 선한 사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야 한다" 고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덟 번째 독서는 겸손을 다루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너 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 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 다."사람들이 감탄하며 바라보는 사람이나 어디 가든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니다. 높은 사람이란 겸손과 사랑으로 조용히 섬기 는 사람이다.

독서09로서1부는 끝이난다. 여기서한 가지 이야기가 등장한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만찬 때 사도들의발을 씻는 시중을 드신다. 발을 씻어 주신 다음 말씀하신다."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예수님은 작은 친절 로 서로를 돌봐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사랑은 거창한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는 데 있다. 말하자면 식사 후에 식구들을 위해 설거지를 하거나 내 분담이 아니더라도 쓰레기 봉지를 집 밖에 내 놓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커피나 차 한잔을 대 접할 수도 있고 바쁘거나 아픈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다. 일부 유명 인사들 이 하는 봉사는 더 눈에 띄거나 더 고상하게 보이는 일들인데, 예수님께서 섬김과 봉사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변 인들에게 베푸는 사소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묵상해보면 우리가 생각만큼 훌륭한 그리스도 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실 우리는 상당히 죄 짓고 사는 사람들 이다.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제안을 명심하라. 이 독서 말씀들을 부 정적으로 적용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가 결코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죄에 빠진다면 예수님은 우 리에게 뉘우칠 기회를 주신다."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 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집 으로 온 탕자의 경우에서처럼 말이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뀌겠다고 진심으로 결심한다면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에 기대를 걸어도 된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뉘우치는 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라.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성부께서도 이처럼 우리를 환대해 주실 것이라 기대해도 좋다.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당신 모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상기시키시려고 당신의 가장 좋은 옷을 우리에게 입히실 것이다. 우리가 당신과 한 가족임을 보여 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아들, 딸들임을 당신의 상속자들임을 보여주시려 당 신 반지를 우리 손에 끼우실 것이다. 또 우리 발에 신발을 신겨 주심은 우 리가 맨발의 고아처럼 방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 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당신께 청해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 다." 성부께서는 우리가 한때 죽었었고 길을 잃었었다는 아픈 기억에 머물 러 계시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과 온전하고 무사하게 당신과 재 회했다는 사실에 뛸 듯이 기뻐하신다.

우리의 아버지는 자비로우시다.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너그러우신 분이시다. 아버지께서는 말 안 듣는 사람들에게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 9,13 ㄴ라고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항상 부정적인 태도도 좋지 않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습관적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예수님 말씀은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이라고 해버리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 예수님께서 부르러 오신 이들이 바로 죄인들이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유념한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 타인의 축복을 위해 덜 자기 중심적이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범칙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죄인들도 하느님께로 돌아오고 하느님 나라에서 행복

을 만끽할 수 있도록 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고 힘쓸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5,11-12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드시려고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우리 안에 참 기쁨이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기쁨, 그것이 바로 예수님 가르침의 목적이다. 우리 사랑을 친지들과 친구들, 원수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작은 형제 자매들에게로 확대시켜 나가면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 것이 되고, 예수님 사랑과 평화는 우리에게서 흘러나와 그분의 모든 백성에게로, 특히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로 전해질 것이다.

기 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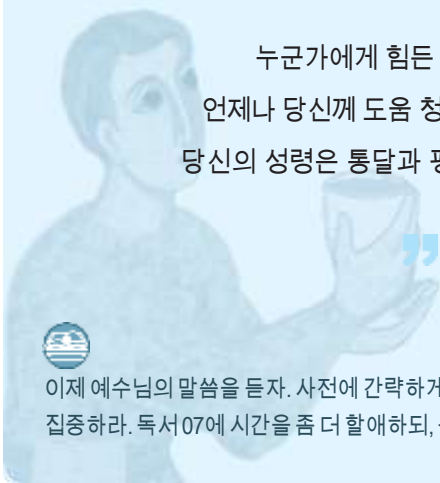
하느님, 당신은 저보다 한없이 위대하시면서도
지극한 겸손으로 한결같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제 주위 사람들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그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그들도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들도 천국의 끝없는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누군가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 제가
언제나 당신께 도움 청하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은 통달과 평화를 선사하나이다.

”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사전에 간략하게 소개하는 내용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독서07에 시간을 좀 더 할애하되, 특히 티와 들보에 관한 내용에 주목하라.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아들이,"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1. 루카 15,11-24.

요 6:39

06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하늘 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아홉 시쯤에 나가 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삯을 주겠소."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열두 시와 오후 세 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다섯 시쯤에도 나가 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하고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그리하여 오후 다섯 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1. 요한 6,37-40. 2. 마태 20,1-9. 3. 요한 10,10ㄴ.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가만, 네 눈에서 티를 빼내 주겠다."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뚜렷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1. 마태 18,10. 2. 마태 5,21-22. 3. 마태 7,1-5. 4. 루카6,3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 나라에서 가장 큰사람이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 와 식탁에 앉아라."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매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하고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1. 마태 18,3-4. 2. 루카 18,10-14. 3. 루카 17,7-10. 4. 마태 20,26-28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사도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민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을 은인이라고 부르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식탁에 앉은 이냐, 아니면 시중들며 섬기는 이냐? 식탁에 앉은 이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에 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1. 요한 13,1-5. 2. 요한 13,12-17. 3. 루카 22,24-27. 4. 요한 15,12-13

제 2 부

자신自身

제 1 장

독서 10에서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옳게 해석하자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는다."는 것은 "자신이 지니고 있던 관습을 버린다."라는 것이다. 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더 큰 유익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때로는 단념해야 한다. 그대는 분명 그렇게 해 왔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예컨대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재미있게 하고 있던 놀이를 중단하지 않았던가? 가족 예산을 염려하여 값비싼 옷 구매를 포기하지 않았던가? 버스에서 아기와 엄마에게 그대의 편한 좌석을 내주지 않았던가? 작년, 또는 지난 주에 이런 일을 몇 번이나 했던가? 잠시 멈춰 생각해 보라. 이런 일들이 사랑을 실천한 행동이다. 계속해 나가라. 아는 사람들뿐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 방법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준비를 하라.

이는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안녕에 필요한 정도마저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적당한 휴양과 사교 활동이 필요하다. 적절한 수준의 갈망은 어느 정도 충족시켜줘야 한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천지 만물을 찾아가보고 감사드릴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이 장의 독서는 세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 번째는 우리 자

신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미워하다"는 것은 덜 사랑하다' 또는 덜 선호하다"라는 뜻의 셈어에서 유래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우리 삶'을 덜 사랑한다면 영원한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며, 이는 하느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다. 영원하지 않을 이 세상 삶에 무분별하게 집착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삶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이 말은 자신의 이익이나 편의를 우선적으로 도모하는 방향으로 습관적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언제나 동료들에게 우리 생각이나 계획을 강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세의 쾌락을 쫓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해야 할 일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죄를 끊어야 한다는 것도 의미한다.

죄를 피하려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유혹의 근원이 되는 기회와 장소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마태 5,27-28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편이 낫다." 루카 17,1-2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마르 8,38

두 번째 영역은 재물이다. 독서 11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일에도 불의하다. 그러니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루카 16,10-11 우리가 돈을 비축할 대상이 아닌, 사용할 수단으로만 대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참된 보화로 인도하실 것이다. 혹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분명할 때에도 그러하실 것이다. 우리가 "나는 노후 보장이 확실해야 하고 내 가족들도 넉넉하고 안락하게 살아야 해. 그래서 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 더욱이 내 자금은 투자에 묶여 있고, 인플레이션을 따라가려면 내 여윳돈은 이자를 창출해 내야 하지. 나는 우리 회사 이익의 최대화를 위해 아주 열심히 일해왔어. 그리고 도덕적이거나 독실한 척하는 원칙 따위에 구색 맞춘답시고 수익도 못 내면서 추가 자본을 푸는 일은 없을 거야. 내 친구들과 친척들 수입은 엄청나. 그래서 무시 안 당하려면 보수도 훌륭하고 폼도 나는 내 직장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매달려 있어야 해."라는 식으로 우리의 물질주의적인 행동을 합리화하지 않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믿으신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보여주실것이다.

조심하라! 돈이 현혹하는 빛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어둠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 묘한 매력이 있는 독재자의 노예가 된 것은 아닌지 잘 살펴야 한다. 위에서 말한 예시 외에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들

과의 말다툼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우리가 돈에 대한 중요성을 과하게 강조하다가 생긴 다툼은 몇 번인가? 또 사업상 이익을 창출해 낼 기회를 놓쳤거나 상거래에서 한 푼이라도 더 손에 쥘 기회를 놓쳐서 낙담하고 후회하느라 수개월을 보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몇 천원 정도를 속였다고 얼마나 속을 끓였던가? 충분히 도울 여건이 되면서도 가난한 사람을 모른 채 하고 지나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던가?

세 번째 영역은 하느님과의 관계와 하느님의 우선시에 관한 것이다. 독서 12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 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곳간들을 헐어 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노동의 결실을 누리는 것에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의 잘못은 그가 부자라는 점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 옛날 아브라함처럼 부자이면서도 거룩한 인물들도 있지만, 하느님을 자신의 의식에서 제외시켜서 부자이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을 자신과 무관한 존재로 취급하며, 하느님의 길에

대해서도 거의 무관심하다. 또 예수님이나 예수님께서 당신과 같다고 하신 이들, 말하자면, 극빈자들, 고통 받는 이들,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에게 관심이 없다.

계속 이렇게 무관심으로 일관할 경우, 최후의 심판 때 이들이 들을 말이 무엇일지 보라: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 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자기 자신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자신의 창조주를 습관적으로 피해버리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마르 10,27 다시 말해, 이런 사람들은 삶의 첫 자리에 주님을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 간다.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서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 가지도 못한다." 마태 6,19-20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백 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마르 10,29-31 예수님께서는 세속적인 애착보다 당신과 복음을 더 우선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만약 토지나 주택 매매 약속이 기도 시간이나 주일 미사와 겹친다면 반드시 후자를 우선시해야 한다. 친척들과 여흥을 즐기며 그들을 기쁘게 해주는 일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것 같으면 반드시 신앙생활을 우선시 해야한다. 사치에 대한 욕심을 충족시키려는 노력 때문에 하느님에게서 멀어진다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 예수님께 대한 우리 충성은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이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며, 함께 하는 인류에게, 특히 나약한 이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최상급의 선물이다. 한편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하느님과 그분의 피조물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인데,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자선이다."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하느님은 우리 돈이 아닌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여유 자금 얼마를 내어 놓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얼마나 내어 드리느냐의 문제이다. 이는 다음 사건에 등장하는 한 여인에 대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에서 강하게 드러난다."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헌금함에 예물을 넣는 부자들을 보고 계셨다. 그러다가 어떤 빈곤한 과부가 렙톤 두 닢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셨다." 내가 참으로 너

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을 예물로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

독서 13에서 예수님께서는"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를 일깨우신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금전적 성공도, 화려한 삶도, 끊임없는 연회도 아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세상은 성령을 무시한다. 사람들은 물질이 주는 기쁨에 사로잡혀 성령께 내어드릴 자리가 없는 것이다. 이들은 주류에 섞여 있어야 하고 최신 유행에 절대 뒤지지 않아야 하며, 따끈따끈한 최신 루머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가장 잘 나가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눈먼 장님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현존도, 성령의 이끄심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이들이 사랑이신 하느님께 돌아오고 그분 말씀에 순명 한다면 성령의 현존을 알아 볼 수 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다시 돌아온 주제이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꾸준히 지켜 나가면 우리는 참으로 해방되는 것이다. 예수님과 이웃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상태에서 조금씩 벗어난다. 이렇게 되면서 진정 삶이 무엇인지를 보는 통찰력을 얻기 시작한다.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유익하지 않은지를 분별하기 시작하고 끊임없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 시작한다.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한다. 진리를 알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불안의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자유롭게 된 우리는 하느님의 보호와 보살핌을 발견하게 되며 그분의 기쁨과 평화를 체험하게 된다.

독서 14에서는 참행복이 소개된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의 의향과 성향은 거짓되거나 혼합되어 있지 않고 솔직 담백하다. 이런 사람들은 언행 불일치가 없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일이 없는 것이다. 말을 해 놓고 자신의 행동에 끼워 맞추느라 그 말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일도 없다. 입으로는"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당신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면서 속으로는"내 나라가 오시며, 내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바라지 않는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하느님을 볼 것이다."이들은 성령을 알아볼 것이다. 또한 매번 성령의 계획을 인지하고 성령의 위로를 구하며 그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이것이 참행복 중 첫 번째이다. 마태오 복음에서 언급하는"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하느님이 필요함을 아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을 옹호해 주고 필요한 것을 섭리해 주실 분이 하느님이심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부 부자들에게서 보이는 독선이나 아집, 교만이

보이지 않는다. 가식적으로 행동하지도 않고, 잘난척하며 자랑할 방법을 모색하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들처럼 되지 못한다고 해서 우울증이나 모멸감에 빠지지도 않는다. 자신의 대단함에 의존하지 않고 하느님께 의지한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다!

때로는 참행복의 두 번째 부분을 빼고 읽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이 문장은 현재 시제입니다. 동료들에게서 조롱과 멸시을 견뎌야 함을 완전하게 알면서도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시간과 열정을 사용하기로 선택하기로 한 순간, 당신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부자들이 누리는 모든 안락함이 사라짐을 알며서도 그사람들과 달리 인생의 목표를 거대한 부의 축적에 등을 돌린 당신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그들이 멋진 집과 차를 소 유하고 번쩍이는 보석과 최신 패션으로 몸을 치장하며 호화스러운 사교 모임에 다니고 기막힌 고급 요리를 즐기며 휴가를 만끽하는 반면 예수님과의 여정으로 비웃음을 살때도 있는 당신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복되다'는 말의 의미 중 하나가 '행복하다'이다. 예수님께서는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신다. 부족함, 힘겨움, 불편함들에 대한 제자의 반응은 부끄러움이나 슬픔이 아니다. 그는 하느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느님이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 이심을 알고있다. 하느님의 총애가 그에게 내린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거나 연민을 호소하지 않는다. "인생은 너무 불공평해. 나는 정말 순교하며 사는데 아무도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군, 나는 많은 일을 했고 내가 행한 고결한 일들을 알아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네."라고투덜거리거나 신음하지않는다.

예수님의 제자는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다. 기쁨과 희망으로 충만하며, 극히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한다. 일이 잘 풀릴 때에도 내일은 그만큼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며 겸손하게 생활한다. 힘겹고 외로운 순간에는 상황이 호전되는 때는 언제나 다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절망하지 않는다. 악과 대적해야 할 때가 자주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든 필히 하느님께 의탁한다. 평화로운 상태에 있으며 주님의 말없는 동행에서 위로를 찾는다. 그의 활기찬 모습이 그를 만나는 모든 이의 삶을 밝게 만든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참 행복의 함축된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씀은 의로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느라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는 이들은 복되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응답하면서, 먹고 마시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 주님과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하는 데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다. 풍족하게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그런 생활을 기꺼이 접고 고급 요리를 먹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 비싼 곳에 가거나 비싼 물건을 사지 않는다. 이들은 얼마나 복된가.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 마태 25,34-35

가끔씩이라도 개인적으로나 기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면

그대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루카 14,13-14

매사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놀까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봉사할 수 있을까를 찾아보는 사람이라면 그대는 얼마나 복된가. 세상의 관습에 묶여있지 않고 변화되겠다고 결심한다면 그대는 얼마나 복된가.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목숨을 내어놓는다면 그대는 얼마나 복된가.

공정하고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용납되는 부정직한 행위나 그 외 위법 행위에 맞선다면 그대는 얼마나 복된가. 비웃음거리가 되고 고독해도 주님의 계명을 꾸준히 따른다면 그대는 얼마나 복된가. 그대의 스승이 물질적 풍요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예수님이라면 그대는 얼마나 복된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전화, 음향 기기, 게임에 정신이 팔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일정 시간을 할애한다면 그대는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기 도

✝

“

하느님, 때로는 제 욕심과 이익을 쫓느라
저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신경 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당신 계명과 약속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선 순위 서열의 맨 마지막에 당신을 적어놓을 때도 많고,
심지어 기도를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제 자신에만 몰두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의 길이 제 계획을 흩어 놓을 것이지만,
그렇게 되어야 당신의 권능이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제가 허락만 한다면 말입니다!
시련이 있겠지만 저는 두려워 않고
당신말씀에귀기울이는 것을배워야할 것입니다.
당신 말씀을 경청하는 이들에게는
당신 빛과 평화가 함께 하옵니다.

”

지금 예수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라. 모든 독서 말씀을 음미해 보라. 정기적으로 재검토해 볼 것을 권한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1. 요한 15,12-13. 2. 요한 12,24-25. 3. 마태 19,17ㄷ, 18-19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맑으면 온몸도 환하고,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1.루카12,15. 2.마태 6,22-24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 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이렇게 해야지. 곳간들을 헐어 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싸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에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그때에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좀이 쏠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1. 루카 12,16-21. 2. 마태 25,31-33. 41-46. 3. 루카 12,33-34.
4. 마태 6,33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1. 마태 22,37-39. 2. 요한 14,15-17. 3. 요한 8,31-32.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얘야, 너는 살아 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저에게 다섯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아브라함이,“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1. 마태5,3-12. 2. 루카 6,24-26. 3. 루카 16,19-31

제 2 장

✝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려면 큰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먼저 믿음에 대해 다루어 보려 한다. "믿음"이나 "신앙"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 확신과 믿음으로서의 신앙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상기 주제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단지 머리로만 습득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에 의한 감화와 성령의 개별적 개입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용감하게 나아가 각자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독자들이 이 장에 있는 질문에 답하면서 직접 발견하는 과정에 참가하기를 바란다.

또한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느님께 청하기도 할 것이며, 예수님 말씀뿐 아니라 그분께서 행하신 몇몇 기적들도 살펴 볼 것이다.

먼저 첫 번째 기적이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 둔 채, 배에 타

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
랐다. 그때에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 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 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 는 그들에게,"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하고 말씀하 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마르 4,35-41

제자들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께서"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신 것일까. 위에 있는 내용을 다시 훑어보면서 답을 찾아 보자.

예수님께"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라고 말해 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잠이 드셔서 우리를 까맣게 잊고 계신 상황인 것처럼 간절하게 말해 본 적 있는가?

기적이 일어난 다음 사람들이 서로에게 물었던 것은"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이었다. 이 질문은 바로 이 장에서 독자들이 묵상해봐야 하는 주요 질문 두 개 중 하나이다. 나는 예수님께 기도할 때 누구한테 말씀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마태오 복음에서 이 사건을 서술할 때는 질문이 다르게 표현되었다."이 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마태 8,27

우리가 총애를 베풀어 달라고 자주 청하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독자들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두 번째 주요 질문이다.

이제 두 번째 기적이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 령이다!"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 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 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예수님께서 "오너라."하시자, 베드 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 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마태 14,25-31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원인은 무엇인가?

다음에 소개될 기적 사화는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풍부한 믿음을 보여준다.

>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하 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 이들이 그분 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하고 물으시자, 그들이"예, 주님!"하고 대답하였 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마태 9, 27-30

예수님은 믿음을 얼마나 대단히 여기시는가!"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눈먼 사람 둘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단순히 그분을 믿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 덕분에 시력이 회복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믿음은 그대 것이 될 수도 있다. 믿음이 자라도록 예수님의 명령 두 가지를 따라볼 것을 권한다.

첫 번째는 이렇다.

> 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 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 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마태 6,7-8

이것은 청원 기도이다. 하느님께 무언가를 청할 때는 아주 짧게 청하라. 말을 많이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대가 이방인들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하신

다.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알 것이다. 바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들이다. 게다가 쉬지 않고 중얼거리다 보면 하느님께 지시를 하고 있을 때가 많다. 그러나 하느님께는 지시가 필요치 않다. 그대가 입을 열기도 전에 하느님은 그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다.

앞서 제시한 예와 지금 소개할 구절에서는 몇 마디 안 되는 말로 청원을 한다.

>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그 때에 어떤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 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 습니다."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 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 았다. 마태 8,1-3

나병환자의 기도는 무엇이었나?

다음에 나오는 인물의 기도를 보자.

> 그때에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 그 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 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 아서시어 그 여자를 보시며 이르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부인은 구원을 받았다. 마태 9,20-22

이 여인의 기도는 무엇이었나? 예수님께 무엇을 말하기는 했던가? 난리 법석을 떨었던가? 예수님의 옷을 잡고 한참을 매달려 있었던가? 아니면 옷자락 끝도 거의 만져보지 못했던가?

예수님은 아주 감명받으시어 그 여인을 바로 낫게 하셨다.

우리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는데 있어 권고하는 두 번째 사항은 "걱정하지 마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라.
>
> 마태 6,27. 28ㄴ - 31. 31 ㄴ

그대가 불안해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음의 생각에는 필자의 걱정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청하는 것을 주실까? 신경은 쓰고 계실까? 최근에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는데... 내가 죄책감이 들고 양심이 편치 않은 것을 보니 아마도 예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 같아. 하느님 총애를 잃는 건 너무 쉬워. 내가 청하고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이 기적을 행하실 능력이 있을까 의심스럽다니까. 이런 일을 하시기나 할까?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 참이지? 제때에 도와주실까? 나를 지루하게 기다리게 하시려나?

내가 창피를 당하진 않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해 주실까, 아니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으로 대체하시는 건 아닐까? 하느님께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신다면, 내가 그것에 만족할까? 내 소망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현실에서 영원히 갈까, 아니면 일시적인 환상일까?"

그 다음 기적으로 넘어가자.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 고 필립보에게,"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 겠느냐?"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 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 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이백 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그때에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그러자 예 수님께서"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 가 오천 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 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요한 6,5-11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사람들을 앉게 하셨다. 예수님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신 것은 사람들이 앉은 다음이었다.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청할 때, 우리도 영적으로 먼저 앉도록 하자. 우리 두려움이 진정되고 우려와 생각은 쉬도록, 우리 감정 위에 평화가 내리게 하자. 평온하고 진정된 우리들 위로 예수님께서 당신 선물들을 나누어 주실 수 있도록 하자.

마르코 복음에는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마르 6,42라는 구절이 덧붙여져 있다. 말라버린 빵과 굳은 물고기였지만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서 맛있고 흡족한 음식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충족시키신다. 모두를 만족시키신다.

불안해 마라. 예수님께서는 "청하여라, 너희가 받을 만 하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찾아라, 운이 좋으면 너희는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두드려라, 내가 내키면 문을 열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 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 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많이 주시겠느냐? 마태 7,7-11

하느님께서 주실 때는 언제나 그대를 향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반영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대가 청했던 것이 아닌 대안을 마련하셨다면 그 대안이 그대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미처 느끼지도 못했던 마음 깊은 곳의 갈망을 충족시켜 줄 것이다. 하느님은 당신 자녀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아시므로 적시 적소에 그것을 주실 것이다.

그대가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청할 때는 말을 적게 할 것이며 청하고 난 다음에는 걱정하지 마라. 그대의 아버지께서는 그대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리라.

다음에 이어질 인용구절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 믿음을 호되게 시험 받았던 몇몇 인물이 등장한다.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했고, 한 명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다. 또한 모두가 예수님을 저버렸다.

>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바로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큰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분을 팔아넘길 자는,"내가 입 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두었다. 마태 26,47-48

> 그때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마태 26,56 ㄴ

>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대사제의 집으로 데려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안뜰 한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았다. 그런데 어떤 하녀가 불 가에 앉은 베드로를 보고 그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말하였다."이이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그러자 베드로는"여자야, 나는 그 사람을 모르네."하고 부인하였다. 루카 22,54-57

다음 질문들에 한 번 답해 보라.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던가? 유다 는 예수님이 세우기 원하셨던 그런 왕국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인가? 유다 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비전에 믿음을 잃고 악마의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 더 좋았던 것인가? 사도들은 왜 예수님을 저버렸던가? 각자의 안전에 대해 불안을 느꼈던 것인가? 예수님의 방법에 대해 믿음을 잃었던 것인가?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가? 예수님이 부끄러웠던 것인 가? 자신의 스승에 대한 믿음을 잃었던 것인가?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모르네."라고 했을 때는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주시하라. 그는 거짓말을 하려 했으나 실은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말한 것이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몰랐다. 카이사리아 필리피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하고 대답하였다.마태 16,16 그런데 이 말이 베드로에게는 진정 무슨 의미였던가? 이 대답이 그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남들보다 나은 사람인가?

사도신경을 바치면서 "저는 하느님을 믿나이다."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기도가 그대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가? 행동을 개선시키는가? 위기가 왔을 때 두려움을 가라앉히는가?

"위기"를 중국어로 하면 危机wēijī, 웨이지이다. 이 단어에서 危wei, 웨이는 "위험"을, 机ji, 지는 "기회"를 뜻한다.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 위험요소는 잘

보지만 그 안에 있는 기회는 잘 보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께 보호해 달라고 청하고, 장애물을 거두어 주시며 폭풍우에서 우리를 건져 달라고 애원하면서 기도한다. 예수님이 안 듣고 계신 것 같을 때도 많다. 그분의 답이 너무 더디게 와서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한다. 이 위협 상황이 지나가기는 할까 의심도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지체하시는지 궁금해 해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기회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 볼 기회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 장애물을 활용해서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간적 조건과 한계를 깨닫기를, 죽을 운명을 지닌 모든 존재가 시공간과 창조의 순리로 인해 갖게 되는 한계에 대해 더욱 깊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거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결속을 새로이 다지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쳐야 되는 어떤 일이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실 수도 있다. 금지된 관계를 끝내기를 바라시는 것일 수도 있다. 특정 활동에 동참하지 않기를 바라실 수도 있고 나쁜 습관을 버리기를 바라시는 것일 수도 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의 동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당신을 파트너로 넣어달라고 부탁하고 계신 것일 수도 있다. 기도 안에서 당신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일지 모른다. 또는 온전히 굴복하면서 당신께 의탁하기를 바라시는 것일 수도 있다.

지금 그대의 믿음이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라. 사도들에게서 배우도록 하라. 보다시피 사도들은 여느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 난 것이 없었다. 예수

님에 대한 이들의 믿음은 성 목요일에 비참하게 무너졌다. 사도들은 아연실색하며 흩어졌다. 꿈도 산산 조각 났다. 그러나 배반하고 떠나고 부인했던 그 끔찍한 저녁이 지난 지 겨우 삼일 만에 곧, 예수님께서 고통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들은 신앙의 참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삼일! 아주 짧은 시간이다.

예수님께서 부활 하신 후 세 번째 발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라. 이번 장에 소개되는 마지막 기적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 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래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대 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 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 리도 함께 가겠소."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 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 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 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 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 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 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 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

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
고 왔다. 그들은 뭍에서 백 미터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뭍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 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뭍으로 끌어 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백쉰세 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 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 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한 21,1-12

마침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뿐 만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도 이제는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보살피시는 권능의 주님이심을 알게 된 것이다. 새벽녘의 고요함 가운데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음식을 먹는 동안 말도 많이 필요 없었다. 지난 날의 불안은 사라졌고, 불안이 있던 자리에 신뢰와 평화가 자리 잡았다.

제자들의 믿음이 바뀌는 데는 몇 년이 걸렸지만 결정적인 단계는 단 며칠 만에 이루어졌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다음의 두 가지 권고 사항을 따른다면 우리 믿음 변화에 그 결정적인 단계가 빨리 올 수 있다. 먼저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그리고 "걱정하지 마라."라는 두 가지이다.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밧줄을 풀지 말고

위 두 가지를 끈질기게 지켜 보라. 예수님의 말씀에 매달려라. 그런 다음 그대의 믿음이 커지고 높이 날아 오르는 것을 보라. 예수님께서 그대 삶 안에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벗인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의 일체감, 직접적이며 기쁨이 넘치는 일체감을 체험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이며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요한 복음 6장 47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요한 17장 3절에서는 성부께 말씀하신다.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위 두 말씀의 논리를 따르면,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을 아는 것이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대의 사랑하는 구원자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미는 무조건적으로 그분을 믿는 것이다. 이제와 그리고 영원히 그 찬미를 그분께 드려라.

아멘.

기 도

✝

"

하느님을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저와 제 사랑하는 이들의 창조주,
당신 손이 이루신 업적을 소중히 여기시는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하시어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 죄가 씻기게 하시며, 우리도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을 저는 믿나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주님이시며 사랑을 주시는 분, 주님이시며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성령을 저는 믿나이다.

하느님께서는 저희를 남이 아닌 벗으로 만드셨음을 믿나이다.
외부인이 아닌 가족으로 만드셨고,
재앙이 아닌 선을 위해 만드셨으니,
이제부터 신뢰, 믿음, 통달, 평화 안에서 나아가리다.

"

제 3 장

✝

우리는 독서 14에서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대를 모욕하고 박해할 때, 그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온갖 악담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감사하고 행복해하라. 기뻐 뛰라. 그대는 예언자들의 무리에 든 것이며, 예언자들 중 가장 위대하신 분이신 예수님의 동반자인 것이다.

독서 15에서 "제자는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대는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으며 그분처럼 되어가고 있다. 그대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루카 6,40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현재 그대 입장에서 총독들과 임금들은 회사 사장이나 중간 간부일 수도 있고 심지어 그대의 배우자일 수도 있다. 그대는 자신의 그리스도적인 결정과 행동을 지키기 위해 이들에게 답해야 할 것이다.

"어찌 감히 도덕적 관점을 가지고 회사 방침에 맞서려 하시오? 이 채무자한테는 가차없이 대했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요? 저 잘못한 사람들에게 왜 더 심하게 질책하지 않은 겁니까? 당연히 당신 몫인 것을 왜 모조리 손에 넣지 않았어요?"반대신문 당할 때 당황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대가 당신 증인으로서 이 사람들을 대면하게 될 것이라고 사전에 말씀해 주셨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독서 16에서 예수님께서는"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그대를 오해하거나 억울하게 비난할지라도 괴로워 마라.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고 바로잡힐 것이다. 경솔하게 반응하거나 굴욕적인 변명을 할 필요도, 보복할 필요도 없다. 대화를 단절하지 말고 마찰의 원인을 파악하라. 자신의 입장을 지혜롭게 전하라. 기도로 하느님 도움을 청하라. 그대에게 상처 준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루는 가시적인 성공을 부러워 하지 마라. 이런 성공은 곧 속사정이 드러날 것이며, 하느님께서 이를 다루실 것이다.

다음 독서독서 17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에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같은 독서에서 밀 사이에 자란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악의 문제에 대한 식견을 구할 수 있다. 하느님의 원수는 하느님 사람을 파괴하려고 끊임없이 애쓴다. 주님은 이를 모두 아시지만 이 상황을 절대적으로 지배하신다. 주님은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녀들 곁에 사는 것을 허락하신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예지를 뛰어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당신의 계획을 전적으로 믿으신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사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당신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 주십사고 빕니다."요한 17,15 제자들은 악이 전혀 없는 환경으로 옮겨질 필요가 없었다. 하느님 보호 아래서 세상에서 훌륭히 제 역할을 했고, 놀랍도록 성화될 수 있었다.

이런 환경에는 당연히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의 계획과 목적을 믿고, 그 분을 사랑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서로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좋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확언을 염두에 두라.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 ㄴ

그렇다고 악의 세력에 대해 방심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문제가 생기면 하루 종일 중언부언하면서 침울해 하지 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배워 보도록 하라. 좋은 해결책을 강구해 보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라. 본당 도서관에 비치된 책을 찾아보거나 사람들에게서 조언을 구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독서 18로 넘어가보면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양심을 들들 볶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등장하는데, 말하자면, 일부 죄인들을 회개시키는데 있어 진전이 없을 때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해 보라. 첫 단계를 실패했을 때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도 기대했던 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세 번째로 권고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이도 통하지 않을 시에 예수님께서 그대에게 하라 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다.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그 외에 것은 할 의무가 없다.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하느님 손에 맡겨라.

그렇다. 우리는 화 내거나 빈정대거나 따돌리면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존중해주면서 그들을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루려는 것이 가시적인 표시로 바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초조해 하지 않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하느님께서 친히 그들을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며 당신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당신께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실 때에는 비록 그대는 눈치 채지 못할지라도 그대를 쓰실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그대의 지도자가 되

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그분께서는 그대를 더 자주 쓰실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마태 4,19 예수님 뒤에 서 그분을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끄시도록 허락하라. 그러면 그대는 예수님을 위해 영혼들을 낚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 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루카 13,20-21 하느님의 생명은 그분을 충실히 따르는 자들을 통해 저절로 발산된다. 그대가 맡은 몫을 다할 때 다른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 가르침에 충실히 따르라. 그러면 많은 이들이 영향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될 것이다.

독서 19로서 2부는 끝이 난다. 독서 19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은 겟세마니 동산에서 당신의 인간적 감정에 잠시 휩싸이신다. 공포, 고뇌, 비탄이 예수님을 엄습한다. 임박한 호된 시련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겨워 아버지께 간청하신다.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성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더 우세하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기꺼이 순명하신다. 끝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당신을 사랑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에 순명 함으로써 아버지를 사랑하신다.

그 후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신한다. 각자의 관계에서 우애를 드러내는 피상적인 표시를 조심하도록 하자. 가짜 친구들은 겉보기에 우호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나쁜 계획을 위장할 것이다. 이러한 가짜 친구들이

비 종교 집단에만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유다 이스카리옷은 사도였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배신자들이 있다는 것에 놀라지 마라. 이들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독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고발한 자의 종이 귀가 잘려나간 것을 치유하시는 모습이 나온다. 복수가 아닌 자애로 답하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이제 예수님은 죄수로 취급 받는다. 우리도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면 세상은 우리를 죄수로 낙인 찍고, 비경제적이고 멍청하며 비현실적이고 구식인데다 편협하고 약하다 한다. 이렇게 남들 눈에 모자라 보여서 이들은 우리를 사회적으로 십자가에 못박을 수도 있다. 예수님 가르침에 대한 단호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로 이런 모욕이나 무례한 행동도 묵묵히 참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짧은 생애 동안 여러 번 배척당하셨다. 그대가 배척당할 때 슬퍼 마라. 우리 주님처럼 그대도 잠시, 비웃는 자들의 거절과 오해에 직면해야 함에 기뻐하라.

"'오후 세 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예수님은 하느님의 현존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단호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신다."'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그 길이 치욕과 실패로 치닫는 것처럼 보일

지라도 예수님은 아버지께 온전히 내어 맡기신다.

독서 19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도 스승님만큼 하느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남겨준다. 모든 것을 바쳐야 할 지라도 하느님의 법령에 충실할 것인가? 자신의 평판이나 야망, 경제적 보장을 쫓기보다 하느님께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을 우선시 할 용기가 있는가? 공들여 세운 계획을 포기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당신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마주 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하고 말하였다."그 백인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독서 2에 있었던 가르침을 기억하라.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루카 6,35 다음 참행복도 기억하라.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마태 5,9 예수님은 당신 원수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신다. 당신께 상처 준 사람들에게도 계속 선행을 베푸신다. 예수님은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신다. 이런 점만 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된다. 악과 반대자의 얼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느님의 계명에 충실한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하느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것이다. 개인적인 위신이나 평안에 신경 쓰지 않고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의연하게 대한다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으며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따른다면, 언젠가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

라 이방인들도“ 이 형제는 분명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 자매는 분명 지극히 높으신 분의 딸이다! 이 제자는 확실히 자신의 스승처럼 되었다!”라고 외치며 우리를 통해 하느님께 영광 드릴 것이다.

기 도

✝

주님, 당신은 사랑의 하느님이시며,
언제나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오나, 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면 두려움이 밀려듭니다.
힘이 빠지고 지칩니다.
당신께서는 언제나 조용히 그곳에 계시기에
이럴 때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당신은 당신 백성을 잊지 않으시며,
결코 당신 소유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좋은 날 좋은 때에 제 소망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시간을 정하시고, 당신께서 장소를 정하소서.
당신 뜻대로 하소서.
당신 뜻은 불행과 패배로 이어지기 않기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기에,
주님, 당신 뜻대로 하소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에 여자는 근심에 싸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싸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1. 요한 15,18-20. 2. 마태 10,18-20. 3. 마태 10,22-23.
4. 요한 16,20-22. 5. 요한 16,33.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베엘제불이라고 불렀다면, 그 집 식구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두 마리가 한 닢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1. 마태 10,24-33

하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아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에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1. 마태 13,24-30. 2. 마태 13,40-43.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 버려라.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이들의 눈먼 인도자다.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1. 마태 7,6. 2. 마태 18,15-17. 3. 마태 6,11. 4. 루카 16,31.
5. 마태 15,14. 6. 요한 6,44-45ㄱ. 7. 요한 15,16. 8. 마태 8,22.

그들은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하고 말씀하신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시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가게 해 주십사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라고 하는 자가 앞장서서 왔다. 그가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느냐?"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둘레에 있던 이들이 사태를 알아차리고, "주님, 저희가 칼로 쳐 버릴까요?"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 버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만해 두어라."하시고,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 주셨다.

그때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

골 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그러고 나서"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후 세 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는 번역하면,"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아버지,"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을 마주 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하고 말하였다.

1. 마르 14,32-36. 2. 루카 22,47-51. 3. 마태 26,56ㄴ. 4. 요한 19,16-18.
5. 루카 23,39-43. 6. 마르 15,34. 7. 루카 23,46. 8. 마르 15,39.

제 3 부

예수님의 복음을 살라

제 1 장

✝

우리는 마지막 독서에서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라는 구절을 읽었다. 그대는 예수님을 버린 적이 있는가? 그대는 예수님을 편의를 따르기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관습으로 일축하며 호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계명을 불필요하게 생각하도록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공정한 조사와 정확한 추론,해박한 지식을 통해 얻어낸 추론이 교회의 가르침보다 더 나아보인다는 이유로 교회의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원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대가 도망친 적이 있다면,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제는 예수님께 돌아올 것인가?"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앙심을 품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네가 돌아오거든 네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루카 23,31-32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그대의 믿음을 흔들고 충성심을 접게 하면서 그대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항시 애썼다는 것도 알려 주신다. 그러나 주님은 그대의 자유를 존중하셨고 그대가 멀어지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대가 다시 돌아올 시에는 그대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해와 겸손으로 힘을 북돋아 줄 것이라는 점도 아신다. 하느님께서는 나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좋은 것을

끌어내실 수 있다.

그대가 예수님을 떠난 상태라면 변화를 두려워 마라. 그분께서는 두 팔을 활짝 열고 그대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대의 마음이 바뀌기를 그분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 또는 기꺼이 용서하신다는 점을 의심한 적이 있다면 그분께서 왜 돌아가셨는지를 깊이 묵상해보라. 십자가 위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대의 모든 죄와 단점을 용서하시고 그대를 대신해 탄원하신다.

누구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신뢰한다면 그에게 회복될 수 없는 손상이란 없다.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강도가 아주 아름답고 감동적인 순간을 통해 이를 보여주었다. 그 강도는 예수님께서 그분 나라에 들어갈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고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아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루카 23,43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날 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요한 20,19 ㄴ-21 ㄴ 예수님이 단 한 마디도 거부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음을 눈 여겨 보라. 제자들의 불충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도 않으셨고 이들을 얕보지도 않으셨다. 오히려 평화를 빌어주셨다. 이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셨고 심란한 마음을 편하게 해 주셨다. 당신을 잠시 떠났던 이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다. 다정하게 당신을 내어 주시는 것이다.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당신의 상흔, 투쟁의 흉터를 드러내 보이시면서 사람들이 원수가 아닌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친근함을 보여주셨다. 화해를 바라는 당신의 소망을 강조하시며"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다."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성령을 받아라."요한 20,21ㄴ.22 예수님께서는 당신 아버지께서 당신을 대하신 것과 똑같이 제자들을 대하고 싶으셨다. 다시 말해 여전히 그들을 파견하기 바라셨고 여전히 그들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셨다. 그대가 예수님을 잠시 떠났을지라도 그분께서는 그대에게 이렇게 하신다. 그대가 여전히 당신 제자이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당신 파트너로서 봉사하기를 바라시며, 거리낌 없이 당신 영을 그대 위에 부어주기를 원하신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루카 24.45-47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용서를 선포하라고 이르셨다. 그대가 예수님을 떠난 상태라면, 예수님께서 그대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이 반드시 회개를 선포하도록 하셨다. 그대 마음을 돌려 죄에서 떠나 하느님께로 돌아오라.

예수님의 복음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복음을 산다는 것은 일상 생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팽겨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 사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봉사하는 이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복음을 산다는 것은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균형 잡힌 생활하기, 몸에 좋은 식단대로 식사하기, 비타민과 허브 일일 권장량 섭취하기, 운동하기, 상황에 맞는 화장과 패션 연출하기, 일반적인 에티켓 지키기, 대접하기, 대접받기, "지적인" 대화하기 등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복음을 산다는 것은 이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예수님의 계명("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르 12,30.31]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즉 모든 상황과 생각, 일, 타인에게 말할 때, 특히 내가 습관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할 때 이 계명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정의 중심과 성탄절과 부활절의 중심에 텔레비전도 아니고 산타클로스나 부활절 토끼 같은 상업적 수단도 아닌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공경하고, 휴대전화로 잡담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조용한 시간을 더 많이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복음을 산다는 것은 기쁨이 넘치는 사랑 안에서 살고 우리 주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며 사는 것을 말한다.

이번 장 첫 번째 독서[독서 20]에서 이런 말씀을 듣는다. "'나에게' 주님, 주님!"한다고 모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

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에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하고 선언할 것이다.''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켰던들, 이러한 행위가 하느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는 하느님의 참사랑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없다.''불법악행을 일삼는 자들'이라는 말의''불법악행'이란 선善의 부재不在를 말한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는 어떤 활동에그 중 일부는 칭찬할 만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참가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활동에서 영원한 선을 얻어내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내가 책을 수십 권을 읽고 여러 분야에 상당히 박식하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무시한다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내가 몇 백 만원을 기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견줄 만큼 큰 선물을 준다 한들, 내 인생에서 하느님을 저버린다면 나는 아무것 도 아닌 것이다. 내가 훌륭한 언변을 재능으로 받았는데 말로 허세만 부리 며 사람들의 환심을 사느라 날마다 그 재능을 허비한다면, 나는 그저 시끄 러운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주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이 그분을 가장 꼴 찌 자리로 밀쳐내고 산다면,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내게''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야!'라고 하실지도 모른다.

하느님의 사랑은 남의 이목을 사로잡는 공연 같은 것이 아니다. 거룩함과 지혜는 번잡하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다. 하지만 하느님은 못 속인다.

이 부분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짚고 넘어가자. 예수님은 우리가 몸과 마음, 영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훌륭히 관리하고자 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다. 좋은 일을 못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 노력이 결실을 맺게끔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 머물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우리가 순명하면서 예수님 안에 머물면 결실을 내는 제자들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도 마지막 숨을 내 쉬는 순간까지 아버지께 순명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실 수 있었던 추수는 풍성했고 끊임이 없으며 영원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 15,16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아닌 선택의 방법을 쓰신다. 그분이 바로 당신의 일꾼을 지목하고 훈련시키며, 이들이 준비되었을 때 전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분께서 일꾼을 파견하시면 그

들이 이루는 좋은 열매는 길이 남을 것이다.

독서 21에서 예수님께서는"바리사이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라고 하신다.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적용하지 말아야 함을 기억하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선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다. 위선이 손톱만큼이라도 몰래 들어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 누룩처럼 아주 작은 것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선이라는 것은 미우 위함한 단점이다. 과도한 겉치레를 부추기고,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하며, 때로는 엄청난 환멸을 느기게 할 수 있는 것이 위선이므로, 이 주제에 대해 시간을 좀 더 할애하도록 하겠다. 예수님의 경고는 다음과 같다."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위선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모든 잘못들 가운데 가장 자주 지적하시는 것 중 하나이다. 복음서 전반에서 예수님을 가장 화나게 만들었던 이들은 위선자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씀을 던지신다."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그대의 마음에 판단과 멸시, 건방짐과 적개심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자신이 거룩하다는 생각에 빠져 있지 마라. 모든 이가 따라야 할 모범이 그대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사람들이 그대에게 주목하고 있겠거니 착각하지 마라. 다른 이들에게 훈계하려 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훈계하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는 혐오스러운 것이다."예를 들어,"폼 나는 주일용 정장"을 입고 성당에 간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기도문의 계, 응을 정확히 알고 전례 중에 언제 앉고 일어서는지를 잘 안다고 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미사나 예배가 끝난 다음 사교적인 인사를 상냥하게 나누는 것은 그저 우리 본 모습 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게 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드는 내용만 택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면 얼른 넘어가 버리는 것은 아닌가?"이런 진부한 얘기는 이미 읽어봤어. 이런 건 케케묵은 옛날 얘기고,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초보자들이 읽을 거리지. 나는 지금도 잘 살고 있고, 또 굳이 말하자면 나는 신식이 좋다고."라고 하면서 자신을 제외시키는 것은 아닌가?

위선자들은 그저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것에는 편

하게 눈을 감아 버린다. 자신의 눈에는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훌륭해 보인다. 또 무엇이든 자기 기준에 맞기만 하면 옳은 것으로 판단해 버린다. 이런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만드는 규칙은 셀 수 없이 넘쳐나며 이 모든 규칙을 자신의 "철학"에 맞춰 해석한다. 자신이 아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면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치부해 버린다. 나보다 "못한" 누군가가 의견을 낼라치면 위선자들은 속이 끓어 오른다. 그래서 공식 석상에서 대놓고 무시하거나 거절해 버리고, 그렇게 안 되면 어두운 마음 속에서라도 그렇게 해 버린다. 사실 이런 위선자들은 말만 유창하지 속은 텅 빈 쭉정이 같고 무지한 자들이다.

같은 문단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 주는 말을 하는 연사가 오거나, 자신의 부, 사회적 지위가 주는 영향력, 학위 등으로 자칭 지식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어느 유명 인사가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 가르침을 얕잡아 보거나 의심할 때가 가끔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크게 중점을 두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이론이나 활동에 대해 칭찬하고 찬사를 주고 받는 친구들 무리에 섞여 있을 때가 더 편할 때가 많다.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얼마나 쉽게 저버리는가.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위선자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타인을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일이 없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몇 명 없다. 당연히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는 타인에게도 공손한 척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다.

또한 경쟁자에게는 깊이가 없다는 등 갖가지 오명으로 바로 낙인 찍어 버리면서, 정작 자신의 비판에 녹아 있는 위선과 억지 추론의 오류는 인정하지 않는 위선자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위에서 언급한 인간적 결함이 반드시 위선 때문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개 이런 것들은 무의식적인 습관이며, 고의적이거나 비난할 만한 맹목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물음의 답은 당연히 "제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어떤 계기로 정신을 차리면 자신의 행동을 고친다는 사실에 희망을 두고 일부 성격적 결함은 이 책에서 언급하지 않았음을 명시한다.

독서 22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예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온갖 신조가 바람처럼 불어 닥쳐도 무너지지 않고 "나의 이 말"즉 다른 그 누군가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면 우리 토대는 견고하게 지어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

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이 독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들의 혼인 잔치를 마련한 어느 임금의 비유를 드신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나는 너를 내 왕국에 초대했는데 네가 입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옷을 너는 왜 안 입고 있느냐? 너는 왜 내가 요구했던 길로 오지 않았느냐? 너는 왜 내 지시를 따르지 않았느냐?"

그 다음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신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때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에 빠질 수도 있다. "'나는 현재 꽤 존경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 당연히 내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해도 된다. 나의 불쾌함을 나타내기 위해 상스러운 말을 해도 된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내 배우자를 몰아붙여도 된다. 일상사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큰 소리 쳐 주는 것도 괜찮다. 나 같은 사람이 조언을 해준다는데 싫을 게 뭐가 있는가. 나는 온갖 종류의 유희를 내 마음대로 즐길 권리가 있다. 원하는 만큼 술도 마시고 최신판 소설도 섭렵하며, 극장에서 모든 장르의 영화를 보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무 프로그램이나 다 볼 수 있다. 아무 것도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집에서는 만족이

안 되므로 당연히 결혼 생활 외의 내연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생각에 끌려 다니지 마라. 그러한 성향이 있는 자는 잘려나가서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그런 사람은"주인이 늦어지는구나."라고 혼잣말을 하곤 한다. 즉, "주인이 명령한 것을 아직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할 것이다."…"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독서 23에 등장하는 비유에서는 3년간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보지 못한 밭주인이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명령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런데 포도 재배인이 부탁을 했다."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 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장할 기회가 여전히 있다는 것, 그러나 그 기회가 오랫동안 주어지지는 않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앞서 기술된 처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단죄하셨다고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사실 정반대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하느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우리 삶의 방향을 조금만 전환시키면 우리의 재능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을 수 있고, 거룩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하느님 나라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느님께서 주신 이 은총의 시기를 잘 활용하기를, 우리 능력

과 돈, 영향력 일부를 하느님과 가난한 이들, 약한 이들, 스스로 무언가를 해 낼 줄 모르는 이들에게 봉사하는 데에 쓰기 바란다.

우리가 받은 선물이 많을수록 우리는 모든 이에게 더 인내하고 친절히 대하고 겸손하고 공손하고 자비롭고 부드러우며, 도움과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모든 이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나 감동을 주고 싶은 사람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이 좌지우지 되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이미지 때문이 아닌, 진심으로 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자.

기도할 시간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자. 우리에게 재능과 기회를 주신 창조주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모든 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독서 24에 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네 번째 문단에서 예수님께서는 "빛이 너희 가운데에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걸어가거라. 그래서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게 하여라."라고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우리가 빛 속을 걷고 지금 바로 복음에 따라 살며 지금 바로 당신을 따르라고 재촉하신다. 지체하지 말 것이다. 오늘 시작하라. 이 말은 우리가 늑장 부리면 받아주지 않으실 것이라는 뜻이 아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환영

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고집스러우리만치 그분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 그분께로 돌아가지 않으려 함으로써 결국은 유다 이스카리옷처럼 자신을 단죄해 버리고 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어라."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보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마태 5,16 라고 하실 때 언급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빛이다.

위에서 거론한 내용과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마태 6,1ㄱ 라는 말씀 간에는 모순 되는 바가 없다. 만약 그저 잘난 척 하려고 어떤 일을 한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마태 6,1ㄴ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그분의 빛이 내면에서부터 빛나는데, 이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따라 할 수 조차 없는 것이다. 그 빛이 하느님이 주신 것임은 모두가 알고, 영광은 그대에게 잘못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대가 "내 말", 즉,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면 그대는 진정으로 "나의" 제자, 즉,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자격이 있다. 그대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눈을 뜨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는 그대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는 그대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랑의 봉사를 할 때 그 사람들도 자유롭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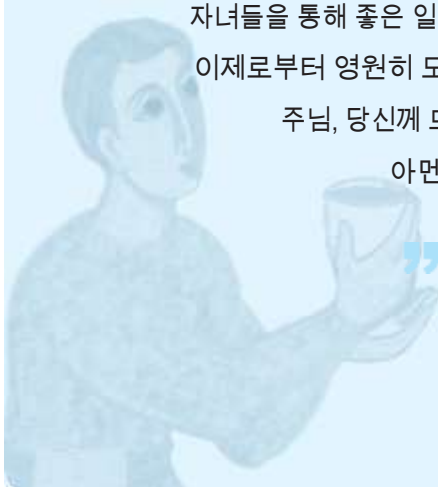
기 도

✝

"

하느님, 저는 제가 가진 것을 활용하겠습니다.
제 능력을 개발하겠습니다.
완덕에 이르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허망하게 만드는 것들에는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공정을 낳는 것은 제가 얼마나 높이 평가 되느냐가 아니라,
제 인생 길에 당신 말씀이 주관하는지의 여부입니다.
당신은 저를 전능하게도 만들지 않으시고,
문제를 없애주지도 않으십니다.
당신은 제가 당신 자녀이길 원하시며,
자녀들을 통해 좋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모든 감사와 찬미를
주님, 당신께 드리나이다.
아멘.

"



나에게 "주님, 주님!"한다고 모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에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하고 선언할 것이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 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 버린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1. 마태 7,21-23. 2. 요한 15,4-6. 3. 요한 15,9-10.

바리사이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개종자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뭍을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1. 루카 12,1ㄷ. 2. 마태 23,5 ㄱ. 3. 마태 23,27-28. 4. 마태 23,25-26.
5. 마태 23,15. 6. 루카 16,15. 7. 마르 7,6-8. 8. 요한 5,39-44.
9. 마태 5,20.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하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

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주인이 늦어지는구나."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땅에도 거름에도 쓸모가 없어 밖에 내던져 버린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1. 마태7,24-27. 2. 마태 22,2. 11-14. 3. 루카 12,47-48.
4. 마태 24,45-51. 5. 루카 14,34-35.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삼 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 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1. 루카 13,6-9. 2. 요한 15,1-2.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빛이 너희 가운데에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걸어가거라. 그래서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어라.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1. 루카12,35-37. 2. 마태 11,28-30. 3. 요한 8,12. 4. 요한 12,35-36.
5. 요한 8,31-32.

제 2 장

十

예수님의 복음을 산다는 것은 그저 복음에 대해 이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의 복음을 산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복음서가 아닌 "예수님"의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실천한다는 의미도 있다. 우리는 다른 종교나 사상가들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한 것을 배울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라면 다른 누군가가 아닌 "그리스도"께 마음을 모아야 한다. 하느님은 예수님을 두고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루카 9,35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은 그분을 찾아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하고 말하였다."마태 2,1-2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 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던가? 더 이상 다른 아기를 찾지 않았다.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마태 2,9 ㄴ-11 ㄱ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였다. 그분께 경배 드렸다.

그분을 만난 것이 더없이 기뻤고, 자신이 찾아 나선 임금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였다.

그리고 다른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라는 경고를 받고는 그렇게 행하였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마태 2,12 그들은 경로를 변경했다. 방향을 바꾸었다.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변경함으로써, 먼저 왔던 길로 갔으면 당했을 뻔 했던 모든 유혹과 함정을 피하게 되었다.

동방 박사들처럼 하라. 예수님을 찾고는, 분별 있는 사람이 되어 그분을 믿어라. 그대도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모든 각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의 높이, 깊이, 폭을 탐색해 보라는 것이다. 원한다면 예수님을 다른 인물들과 비교도 해 보라. 하지만 궁극에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그분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 그분의 복음을 살아냈을 때 그 복음은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준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도록 하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을 흠숭하고 그분께만 마음을 두라.

독서 24에서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나에게 오너라... 나에게서 배워라."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초대에 전심으로 응답해야 한다. 우리는 유명한 연사들의 연설을 듣고 인기 작가들의 책을 읽고 여러 방면에서 충고를 얻으려고도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배워야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의 방식에 기초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그분의 가르침이 단단한 토대를 이루고

그 위에 모든 신념이 세워지도록 하라. 사업상 업무에서도 예수님 가르침이 기준이 되도록 하라. 여타의 정책이나 원리가 예수님의 기준에 어긋난다면,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정책이나 원리를 멀리하도록 하자. 지혜롭게 처신하여 다른 길을 택하도록 하자.

독서 25에서 예수님은 당신께 오라는 초대를 반복하신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의 마음을 통해 성령이 흘러 나와 생기가 넘쳐날 것이다.

"하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하느님의 생명이 들어오도록 허락한다면 미약한 시작을 훨씬 초월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사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 오는 사람들 안에서도 변화는 이루어질 것이다.

독서 26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신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것이든 청하면 주실 것이다! 멋지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그분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요한 15,10

예수님은 이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

게 되시도록 하겠다.'"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는 것, 이는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납득할 만한 이유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엇이든 청하라.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드리라는 것이다.

예수님은"'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라고 하신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느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께 그 필요한 것들에 대해 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사실 그렇게 청하는 것은 타당하다. 우리가 믿음과 단순함 안에서 우리 마음을 그분께 쏟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존재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며, 그분께 의지함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분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청원을 그분 앞에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정말 운이 좋았어."또는"'나는 마땅히 이런 걸 누릴 자격이 있어. 내가 무진장 애를 썼거든.'"이라며 뽐내기 십상이다. 그러나 예수님께 청하고, 청했던 것을 받게 되면,"'하느님 감사합니다. 찬미 받으소서.'"라고 말하게 된다. 이렇게 하느님의 아드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된다.

"기도"라는 이 중요한 주제를 계속 이어가 보자."'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이를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

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루카 11,1-4 예수님의 대답은 먼저 기도는 하느님 중심적이어야 하며 어린 아이 같아야 한다는 뜻이다. 기도의 목표는 그럴싸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를 잘 하느냐에 대한 점수는 그 주제에 대해 본인이 얼마나 잘 알고 많이 생각하느냐에 따라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기도를 잘 하는 사람의 특징은 천상 아버지께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을 둔다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마태 18,3 이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성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하는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

때로는 주님의 기도 같은 짧은 기도문을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다. 묵상하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나 "빈말을 되풀이 하는 것"이 아니다.마태 6,7 참조

기도문으로 기도 할 때에는 생각 없이 하거나 그저 해치워버리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며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면서 주의를 기울이며 경건하게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하느님께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다. 마지못해 하거나 허둥지둥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심을 담아서 말하자면, 지향을 가지고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면 이 기도는 모든 이들에게 더욱 이롭다. 버릇없이 기도하든 예의 바르게 기도하든 어차피 걸리는 시간은 같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의를 갖추고 기도하는 데 집중해 보자는 것이다. 우리는 그 시간에 우리 창조주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니 말이다.

교회의 가장 큰 기도는 성체 성사의 전례다. 생각을 하며 성체 성사에 임하도록 하자. 성체 성사를 적극적으로 살아 나가자. 성체 성사가 우리에게 있어 하느님의 체험이 되도록 하자. 만약 우리가 어느 주일 미사의 질에 대하여 심사 받을 일이 생긴다면 그 심사 기준은 미사 시간의 길이나 강론의 수준, 성가대의 성가 선택, 다른 본당 신자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평가 받을 일이 있다면 그 평가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참례했느냐가 될 것이다.

기도하라. 그리고 뛸 듯이 기뻐하라. 기도란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샘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하느님과 그분 사랑을 당신 백성에게 드러내도록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대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대의 기도가 필요하다. 모르는 사람들도 포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대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했던 순간에 그대의 기도와 배려가 하느님의 도움을 불러 내렸다는 것을 그들이 마침내 천국에서 알게 되었을 때 그대에게 얼마나 고마워 할지를 생각해 보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일치하며, 기쁨과 평화를 받고 인도와 축복을 얻게 된다. 기도를 통해서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을 얻게 될 것이며, 기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기도하라. 일을 시작하기 전과 일을 마친 다음에 기도하라.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준비가 되었을 때 기도하라. 하느님께서 그대를 무한히 사랑하심을 인지하며, 하루 종일 기도의 정신을 살려 두도록 하라.

날마다 하루 중에 주님께 드릴 시간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았더라면, 이제는 적어도 자투리 시간이라도 내어 보자. 이를테면, 자가용이나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이나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 병원 같은 곳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시간, 혼자 걷는 시간이나 잠이 오지 않을 때, 또는 난관에 부딪혀 힘겨울 때 틈틈이 시간을 내어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대 인생은 지루할 겨를이 없을 것이며, 자신과 타인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이 순간의 5분을 하느님께 드리고 아주 특별한 장소인 그대 마음 속에서 다시금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하찮은 생각이 아니다. 이것이 관상 기도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관상 contemplation. 단어의 어원을 보면 하느님과 함께con 별도로 마련한 곳에templum 있는다는 뜻이다. 그대가 성령이 머무르는 성전templum 임을 몰랐는가?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단식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유익을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라." 마태 9,36-38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행하고 이 기도를 우리 아버지께 바치도록 하자.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식으로든 그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자.

독서 27에는 부활 후에 일어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여기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 사랑의 가장 놀라운 표징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을 때 군중들은 등을 돌렸지만 마리아 막달레나는

끝까지 신의를 지켰다. 다른 사람들이 도망 칠 때 마리아는 달아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믿음을 잃었을 때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 눈에 특별한 자가 되고 싶거든 그분에 대한 충성이 결코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다.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였다.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이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일을 기억할 것이다. 제자들이 포기하려던 순간 예수님께서 물가에서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했고 엄청난 어획량으로 보상 받았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비록 예수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인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하는 일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훗날 우리가 원하던 것을 손에 넣고 세상적인 목표를 달성해 보면, 그제야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꿈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에게만 마음을 두게 될 것이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요한 21,7 ㄴ 물고기나 엄청난 어획량 같은 것들은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분의 친구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일이 된 것이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걷도록 명령해 달라고 하지 않았음을 눈 여겨 보라. 베드로는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헤엄을 쳤다.

이 독서에서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그대에게 하신다면 어떤 대답을 하겠는가?

마지막 독서인 독서 28은 짧은 요약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촉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마지막 문장을 주시하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은 순명하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드러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먼저 하느님께서 그대의 임금이 되시어 그대를 통치하시며, 그분의 법에 따라 살도록 하라. 그대의 유익함을 추구하고 그대를 보호해 주시며, 필요한 것을 섭리해 주시는 자애로운 임금이신 하느님께 먼저 의지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닌, 하느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을 먼저 추구하라. 그분의 삶 그 자체를 먼저 추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대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가? 성부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아는가? 당신 아드님을 향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보다 강한 사랑은 없다. 딱 그만큼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대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똑같이! 그렇게 깊게. 그렇게 부드럽게. 그렇게 무한히 사랑하신다. 그분 사랑 안에 머물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이 독서의 끝부분에서는 마태오 복음의 마지막 구절에 이르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이 말씀을 영원히 그대 마음에 간직하라.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대 안에 현존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인지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대가 예수님을 부를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대가 예수님을 잊고 지낼 때도 현존하신다. 무시당했다고 느껴질 때, 마음이 편치 않을 때, 침울할 때나 지칠 때에도 예수님이 그대를 떠난 것이 아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자질이나 가치가 의문스러울 때, 무의미함을 느낄 때, 하찮고 별볼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예수님은 그대 곁에 머물러 계신다.

더욱이 "나는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뜻이기도 하다. "나는 너를 배척하지 않는다! 나는 네 편이다. 내가 이 지구상에 해 놓은 모든 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해 세상을 만들었다. 나는 살고, 고통 당하고, 죽고, 죽은 이들 가운데 살아나기 위해 왔다. 이 모두가 너를 위한 것이었다.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이 너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내가 한 모든 말은 너에게 깨달음과 기쁨을 선사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준 모든 계명은 네가 잘 되라고 준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네 곁에 있다! 나는 네 편이다!"

기 도

✝

“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당신께서는 당신 백성을 사랑하시며
정성으로 돌보시니,
당신 마음은 언제나 당신 자녀들에게 열려 있나이다.
그렇기에 당신 자녀들을 인내로 가르치시나이다.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가지를 치시며,
길을 잃으면 찾아 나서시며,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길로 데리고 오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모든 것에 감사 드리나이다.

”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 나올 것이다."

하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이삭에 낟알이 영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1. 요한 7,37-38. 2. 마태 13,31-32. 3. 마르 4,26-29. 4. 요한 15,8.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 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이를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1. 요한 15,7. 2. 요한 14,13-14. 3. 마태 7,7-11. 4. 마르 11,23-24.
5. 마르 9,23. 6. 요한 16,24. 7. 마태 6,5-8. 8. 루카 11,2-4.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 일곱 마귀를 쫓아 주신 여자였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래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대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잡으러 가네."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 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1. 마르 16,9. 2. 요한 21,1-3. 3. 요한 21,5-6. 4. 요한 21,12 ㄱ.
5. 요한 21,15. 6. 루카 24,45-53.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1. 마태 22,37-40. 2. 요한 14,23-24 ㄱ. 3. 요한 12,46-48.
4. 요한 15,9-14. 5. 마태 6,31-33. 6. 요한 14,25-27. 7. 마태 28,20 ㄴ.

실 천

✝

좀 더 신경 써서 복음을 살아 본 것이 아래에 열거된 상황에서 나의 최근 태도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생각해 보라. 판단 기준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로 한다.

- 나의 배우자
- 나의 자녀들
- 나의 부모님
- 나의 친척들
- 나의 친구들
- 나의 직장 동료들
- 가난한 사람들
  - 물질적인 면
  - 지성적인 면
  - 교육적인 면
  - 외적인 면
  - 교양적인 면
  - 인격적인 면
  - 효율적인 면

- 정서적, 육체적 건강상

- 나 자신
- 돈
- 사회적 지위
- 비신자들로부터 받는 수모에 대한 두려움
- 예수님의 길에 대한 나의 믿음
- 하느님

예 수

✝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세 가지 측면인 예수님과의 친교, 예수님 가르침의 전파, 영성체를 다루며 마치고자 한다.

첫 번째. 영적인 부분의 우선순위를 메기는 데 있어 중요한 원칙은 다음 구절에 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다음,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열둘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마르 3,13-15 이 구절에서 특별한 의의는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순서 안에 그 의의가 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고 마귀들을 쫓아내라고 사도들을 파견하시기 전에 먼저 열둘을 세우시고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당신 동반자가 되고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려는 것이 첫째 가는 목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요한 15,14 자격 요건은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다.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지키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하느님을 섬기고자 하고 그분을 위해 가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한다. 이는 정상적인 바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 있어 봉사란 특출한 위업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봉사란 최후의 만찬에서 당신 친히 사도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에서 보여주신 봉사, 섬김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마귀를 쫓아내거나 감탄을 자아내는 재주를 부려서가 아니라 이웃에게 소소한 친절을 베풂으로써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루카 10,20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간의 추가 업무를 주실 때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 결정이고 예수님 선택이다. 우리는 그분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

예수님은 기다리셨다. 루카 2,51-52 참조 세례자 요한도 기다리셨다. 루카 1,80 참조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지만 더 기다려야 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루카 24,49 제자들은 성령께서 내려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도 몰랐다.

제자들은 이렇게 기다렸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루카 24,52-53 그들은 기쁘게 기다렸다. 줄곧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마음대로 각자 흩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에 머물렀다. 우리도 이렇게

시간을 써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추가 사명을 위해 당신 권능으로 우리를 입혀주실 시기는 성령께서 정하시도록 두자. 그 때까지 지루함이나 침울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마태 19,30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건설적이고 기쁜 일에 몰두하자.

기쁘고 끈기 있게 주님을 기다리려면 큰 사랑이 필요하다. 기쁘고 끈기 있게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시간이 거북이 걸음처럼 느리다는 느낌이 드는 때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터득하고 나면 인내하는 것이 덜 힘들다. 과거를 돌아볼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몇 년이 흘러간 것이 보인다. 그러므로 시간을 재면서 앞으로 다가올 "대박" 사건을 고대하지 마라. 빈둥거리면서 현재가 꾸무럭꾸무럭 지나가 버리도록 버려두지 마라. 오늘 할 일을 신나게 하라. 그대 도움이 필요한 이를 도와주고, 기분 전환도 좀 하고 기도하고 점점 더 예수님의 친구가 되도록 생활하라. 그러면 어제가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린 것처럼 내일도 금방 찾아 올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사도들이 무엇을 선포하기를 바라셨나? 마르코 복음 3장 14절을 다시 살펴보라. "그분께서는 열둘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예수님의 메시지인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이다. 루카 복음사가도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견하시며 앞으로 수행해야 할 임무를 알려주신 다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

을 전하고 병을 고쳐 주었다."루카 9,6 사도들은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였다. 마태오 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은 큰 사명을 안겨주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오늘날의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같은 방법으로 가르치도록 초대받았다. 예수님 백성들이 그분께 가도록 재촉하고, 예수님에게서 배우라고 열심히 권하면서 방방곡곡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자기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마태 7,28-29 예수님께서 중요시하셨던 그분의 가르침이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그 가르침은 듣는 이들에게 영향을 준다.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각인되어 지워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견하신다면 반드시 예수님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그분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자. 예수님이 강조하신 바를 강조하자. 예수님의 권능이 그분의 계명과 함께 한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서 모든 권한을 받으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낟알이 영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마르 4,26-29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이 씨앗은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린다.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복음이 알아서 정해진 일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믿어도 좋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 올리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마태 10,27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 3,14-15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일 것이다." 요한 12,32 들어 올려져야 되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들어 올려지시면, 예수님은 당신 사람들을 이끌어 들일 것이다. 다른 인간에게로 사람들을 끌어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께로 이끌어 들이신다.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세 번째. 다음 사항을 논하기에 앞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예수님께 부은 한 여인에게서 배워보자. 이 여인은 복음서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마침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값비싼 순 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사람이 불쾌해하며 저희끼리 말하였다. "왜 저렇게 향유를 허투루 쓰는가? 저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터인데.'그러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가만 두어라. 왜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잘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마르 14,3-9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릴 필요가 없었다. 아무도 그 여인에게 이 일을 시킨 적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행동을 보고 과소비라며 나무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무상으로 발라드렸다.

우리도 겨우 최소한의 임무만 설렁설렁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예수님이 시키시는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함으로써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발라 드릴 수 있다. 앞으로 예수님께 더 전념할 수도 있을 것이며특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 더 집중하기, 먹고 술 마시고, 쇼핑하고 잡담하고, 음악이나 텔레비전, 잡지, 컴퓨터, 게임, 스포츠, 그 외 오락에 쓰는 시간과 관심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조용한 시간을 더 할애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느님께 찬양하고 감사 드리면서, 또 죄인들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중재 기도를 해 주고 그들을 대신해 보속하면서 더욱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친지들, 친구들, 하느님의 다른 자녀들, 하느님의 교회를 위해 우리는 목숨을 내어 놓을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서 그 여인에게 자애로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하시다. 바로, 당신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주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잠시 언급만 하면서 이

책을 마치고자 한다.

"동반자companion"라는 단어는 접두어"com"과 라틴어"panis"가 합쳐진 말이다."com"이라는 것은"함께"라는 뜻이며,"panis"는"빵"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동반자란 그대와 함께 빵을 나누는 자를 말한다. 예수님께서 빵을 나누실 때는 당신 자신을 나누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나는 생명의 빵이다. … 이 빵은 나의 살이다. …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요한 6,48.51.56 이는 영성체를 뜻한다. 우리가 성체를 영하면 가장 친밀한 관계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은 우리 안에 머무신다.

영성체는 단순히"하면 좋은 것"이 아니다. 살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그 정도로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역으로"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요한 6.53.54라고 하신다. 이 영원한 생명은 즉시 시작된다!

위의 인용 구절에서"생명"과"영원한 생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존재에는 각기 나름의 차별화된 생명이나 존재의 형태가 있다. 하느님께는 하느님 생명이, 천사에게는 천사의 삶이, 인간에게는 인간의 삶이 있다. 그 다음 동물의 생태, 식물의 생태, 무생물의 생존으로 이어진다. 마르코 복음, 마태오 복음, 루카 복음에서 하느님의 생명은 종종"하느님 나라",
"하늘 나라"로 표현된다. 우리는 이 표현을 여러 번 접했다. 요한 복음에

서 하느님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 쓰인 단어는 단순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가 영성체를 하면 하느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요한 6,57

영성체는 생명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바이다. 첫 번째.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마태 26,26 즉, 영성체 하러 가서, 받아 먹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주일 미사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갈 수 있다. 의무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교를 돈독히 하는 방법으로 미사에 참례하고 영성체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발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그분을 기억하라! 늘 하던 일처럼 습관적으로 영성체 하지 마라. 대수롭지 않게 예수님을 모시는 일이 없도록 하라. 거듭 그분을 마음에 새겨라. 예수님이 그대의 관심과 집중의 대상이 되시도록 하라. 예수님의 생명이 그대 안에서 강해지도록 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최상의 기도이다. 말이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8ㄴ 이 말씀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약속이다. 온 힘을 다하여 이 약속을 믿어라. 예수님은 참으로 계신다. 그대 곁에 계신다. 예수님은 그대의 문제를 알고 계시며 그대를 돌보고 계신다. 그분을 믿어라. 그분 사랑을 믿어라. 그분 섭리를 믿어라. 그분께로 향하고 그대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를 체험하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 6,35 더 이상의 갈망과 그리움도 없을 것이며, 배고픔과 목마름도 없을 것이다. 모든 해석을 초월하는 평화가 그대 위에 내릴 것이며, 말없는 기쁨이 생길 것이다.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대를 계속 기억하고 계심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일이 없다. 언제나 그대를 염두에 두고 계시며 그대에게 주목하고 계신다. 그분은 결코 그대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거듭 증명해 주신다. 예수님은 아낌없이 부어주는 친구이며, 진정한 동반자이다. 예수님은 그대와 함께 빵을 나누기를 날마다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시는 분이시며, 그대에게 당신 생명을 그대로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시는 분이시다.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 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열둘을 뽑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다.' 이는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사실 그는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머지않아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였다.'" 요한 6,60-71

마 치 며

반드시 복음 말씀을 매일 읽도록 하라. 마음과 귀를 예수님께로 열라. 그분 말씀을 경청하라. 예수님께서 그대에게 하시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 고, 깊이 생각하고, 행하라. "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 (루카 8:21)

씨 뿌리는 사람과 씨앗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명심하라.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 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서른 배, 어떤 이는 예순 배, 어떤 이는 백 배의 열매를 맺는다. 마르 4,14-20

초판 발행/ 2013년 11월

저자/ 앤드류 제롬 양

옮김/ 황세정 실비아

표지디자인&캘리그라피/ 김정훈

표지그림출처/ CENTRO ALETTI 작(photoⓒ김정훈)
-프랑스 루르드 로사리오 대성당 정문 모자이크
(빛의신비2단 / 예수님, 카나에서 첫기적을 행하심.)

편집디자인/ 이혜주

펴낸곳/ 떨기나무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1동 683-12 아세아빌딩 B1

전화/ 051-805-3270

팩스/ 051-803-3271

홈페이지/ www.tnamu.com

ISBN 978-89-969762-0-2

Do whatever Jesustells you!

Andrew Jerome Yeung

Translated by Sejung Sylvia Hwang

Copyright ⓒ 2020 by Andrew Jerome Yeung All rights reserved
Origially published by Ave Maria Centre of Peace Toronto, Canada
Korean translation edition is published by Tnamu, Korea

*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저자와 떨기나무 양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tnamu.com

c oi0 1.E.
"T" A. L..

W_••,,,,•,

Al1IAI CH£t; i!.tl

-.a·m,s

7,000

ISBN 978-89-969762-0-2